

다시 수문 닫힌 죽산보... 녹조 알갱이 동동

수위 낮아지니 녹조 치솟아 환경단체 “상시 개방해야” 환경청 “한달내 개선될 것”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 5일 오전 나주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난 1일 수문을 20cm가량 열어줬지만 이를 만에 수문을 다시 내렸다. 죽산보 위쪽 수위를 2.5m로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죽산보 위쪽 영산강 수위를 3.5m에서 2.5m로 낮추기로 하고 지난 1일 수문 2개를 개방했다. 갈증 탓이었는지 죽산보에 갇혀 있던 강물은 열린 수문 사이로 시원하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딱 이틀동안이었다.

지난 3일 오후 1시께 죽산보 위쪽 수위가 2.5m로 낮아지면서 수문도 닫힌 것이다. 수위를 더 낮추면 죽산보 위쪽 농경지의 농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수문이 닫히면서 죽산보의 강물은 진한 녹색으로 변해갔다. 작은 녹조 알갱이들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수문 개방으로 인해 죽산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녹조가 위로 치솟았고, 무더위로 인해 녹조 생육이 활성화되면서 영산강 강물은 마치 ‘녹조라떼’를 방불케 했다.

영산강 자전거 길을 따라 죽산보까지 온 강산진(53·목포)씨는 “이번에 죽산보의



5일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이 굳게 닫혀 보 하류의 강물이 움직임 없이 고요하다. 죽산보의 강물은 녹조로 인해 녹색빛을 띠고 있다. /나주=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수문을 너무 조금 열었다”며 “이렇게 조금 열면 강 바닥에 쌓여 있는 썩은 찌꺼기 그대로 남아 있어 개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다. 죽산보 개방 이후 수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도가량 떨어지는 등 상황이 좋아지고 있

다”며 “하루 이를 만에 녹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비도 내리면서 녹조가 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분석은 달랐다. 죽산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죽산보 수문개방 결정은 환영하지만 부

분 개방으로는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하루 빨리 수문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산강환경청은 이날 죽산보에서 ‘제22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죽산보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벌였다.

/나주=김현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해질 16:41
해진 19:44 | 달질 03:23

단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우량 광주·전남 10~40mm

지역별 날씨 (°C)	
광주	17/22
목포	18/22
여수	17/21
나주	15/21
완도	17/21
구례	13/21
강진	16/21
해남	16/22
장성	15/22
보성	14/21
순천	17/21
영광	15/23
진도	17/21
진안	17/22
군산	17/22
남원	14/21
홍산도	16/20

바다 날씨	
서해	남풍 0.5~1.0
남해	남풍 1.0~2.5
남해	남풍 0.5~1.0
남해	남풍 1.0~2.0
남해	남풍 1.0~2.0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주간 날씨	
7(수)	17/20
8(목)	16/27
9(금)	16/28
10(토)	16/27
11(일)	19/26
12(월)	19/29
13(화)	19/28

세월호 ‘구명조끼 유해’ 이영숙씨 확인

44개 구역 중 33곳 수색...3층 중앙로비 추가 수습 기대

지난달 22일 세월호 3층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온전하게 수습된 유해는 일반인 미수습자 이영숙씨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원이 최종 확인된 미수습자는 단원고 고장석 교사와 조은화·허다운 양 등 4명이며, 남은 미수습자는 5명이다.

5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3층 선미 좌현 객실(3-18구역)에서 수습한 유골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 이영숙씨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4년 4월16일 당시 제주도로 이사를 계획한 아들 집을 신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어렵게 키워 온 아들과 떨어져 지낼 때가 많았고, 아들이 제주도로 와서 함께 지낼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습 당시 이씨의 유해는 머리부터 발까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됐다. 지장물과 진흙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의 유해는 온전한 형태로 나와 다른 유해와 달리 예외 차원에서 실제 장례 때 쓰는 관에 담겨 옮겨졌다.

수습과정에서 이씨의 신분증도 나와 발견 당시부터 이씨는 추정된다. 온전한 형태로 발견돼 DNA 감식 결과 도 비교적 빨리 나왔다. 3층 선미 구역이

침몰 당시 해저면과의 충격으로 압착돼 유골과 옷 등이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해는 단원고 조은화(4층 선미 객실)와 허다운(3층 중앙 로비) 양이며, 단원고 고장석 교사의 유해 일부는 진도 동거차도 인근 침몰해역 수습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민군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허규 부자 등 5명이다.

현장수습본부는 49일째 선체 수색을 이어갔다.

이날까지 3~5층 전체 44개 구역 중 33곳의 수색을 마쳤다. 단원고 객실이 있던 4층은 마무리됐고, 3층과 5층도 로비인 중앙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수습 당국과 미수습자 가족은 3층 중앙 로비 구역(3-5)에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카페, 오락실,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있던 곳으로 객실 외에 다수의 승객이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단원고 허다운양의 유해가 발견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자리(3-6)와도 가까이 있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文대통령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만난다

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지시...사과발언도 검토 피해자 가족모임 호소문 전달...광주·전남 176명

환경의 날(5일)을 맞아 가슴기 살균제 검사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공개 편지에 대통령이 ‘화답’했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5일 오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처럼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위로해달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을 포함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슴기 살균제 검사 피해자들은 ‘세계 환경의 날’인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은 이날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들은 “검사 피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구에 사는 권민정씨는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 두 명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을 편지에서 털어냈다. 권씨는 2004~2007년 옥시썩썩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2005년 임신 31주되었던 둘째 ‘밤불이’(태명)를 잃었고, 2006년 말에는 생후 4개월이던 ‘동영’이를 또 잃었다. 옥시썩썩 가슴기 살균제를 썼다가 2015

년 부전을 잃은 김미란씨는 “아버지는 4단계 피해로 판정된 간질성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면서 “3·4단계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정부는 급성이 아닌 만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된 김미향씨와 이재성씨, 자신이 피해를 당한 주부 김옥분씨 등도 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썼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를 본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는 지난해 말 기준, 247명(광주 139명·전남 1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 71명(광주 36명·전남 35명), 환자 176명(광주 102명·전남 73명)이다.

전국적으로는 5341명이 가슴기 살균제 피해를 봤고, 이 중 1112명이 숨지고, 4229명이 생존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월어민 강사는 근로자” 법원, 퇴직금 지급 판결

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일한 월어민 강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N씨 등 월어민 강사 5명이 C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N씨 등은 C학원과 각자 월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초·중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학원 측은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에는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수도권 최고의 개발지 평택, 제2의 강남을 주목하라!

금리인상 및 혼돈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평택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무엇일까? 평택 삼성 입주 및 미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투자처는 어디? 도심은데 콩나고 도심은데 돈난다 평택의 돈나무가 열리는 노른자위를 찾아라! 평택의 “제2의 강남”은 어디일까? 평택 삼성반도체 1만명 이상 채용!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6월 7일 수요일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서울 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의도동 25-11 유수홀딩스(한진해운)빌딩 5층 (여의도역 4번 출구에서 100m 직진 후 좌회전 100m 우측)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당일 특별 무료상담 진행

강의내용

- ✔ 평택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전망
- ✔ 평택 및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평택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평택 및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 ✔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